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2월 16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23장 31-35절

설교제목 :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삶이 복잡하게 꼬입니다. 전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과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을 통해 알게 된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세웁니다. 천부장의 계획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서 로마시민으로써 정식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무려 470명의 자기 수하의 군인을 동원하고, 바울을 태운 짐승까지 준비하도록 명합니다. 더불어 천부장은 **엘리기움**이라 하는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바울이 무고한 자라는 것을 벨릭스 총독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이 복잡하게 꼬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밤 제 삼시 즉 오늘날로 밤 9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난 바울의 호송단은 밤새도록 움직여서, **안드바드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31절) **안드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56km 떨어진 **가이사랴**로 가는 중간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호송단은 밤새도록 강행군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바드리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한 이후에 보병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철수하였습니다.(32절) 그 이유는 이제 유대 암살단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이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안드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대략 40km정도 남은 거리인데 이제 기병 70명으로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후에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33절) 본문에서 ‘**세우다**’는 것은 재판정 앞에 출두하다는 법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서, 바울을 단순히 벨릭스 앞에 세웠다는 의미보다는 벨릭스가 주재한 법정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어느 영지에 속한 자인지를 물었습니다.(34절) ‘**어느 영지 사람이냐**’를 물었다는 것은 바울이 누구의 관할 권한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당대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 대사를 겸임하고 있었기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자신이 재판할 수 있는 영지의 사람임을 확인한 이후에, 정식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송사하는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 궁에 감금하고 지킬 것을 명합니다.(35절)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인데, 당시 궁전에는 지하 감옥이 있어서, 바울이 궁전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죄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상태였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 아닌, 일반적인 방에서 연금 상태로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 헤롯 궁에 구금당한채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부패한 총독 벨릭스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타락한 관료로써, 바울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별 다른 이유 없이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음모로부터 바울을 가이사랴로 인도해 주신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로마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속히 가이사랴를 떠나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기와 기회를 관장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때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에서 실패와 좌절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도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었던 시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15을 봅시다. **행9: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입니다. 결국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면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뿐만 아니라, 새 유대 총독 베스도와 분봉 왕 아그립바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감금의 시간에 이방인들의 왕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울의 삶에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었지만, 그 기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결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롬8:32, 히2:18, 히7:25, 롬8:26)

※.말씀 살펴보기

- 1) 벨릭스가 바울이 어느 영지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동안 구금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한데,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 삶이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꼬이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